

풍속화[風俗畵]

평범한 일상을 화폭에 그리다



1 개요

그림은 예술의 영역에 속하면서도 시대의 역사를 반영하기도 한다. 무슨 종지와 안료를 썼는지부터 어떤 화법을 수용했는지에 이르기까지 당대 예술과 역사의 흐름을 반영한다. 또한 화폭에 담긴 내용 자체가 시대상을 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회화 중에서 풍속화가 특히 그러하다.

특히, 조선 후기의 풍속화는 생생한 삶의 모습을 소재로 하였다. 화폭에는 농사꾼들이 땅을 경작하고, 여인들이 개울에서 빨래하며, 아이들이 서당에서 공부하는 일상생활이 사실적으로 담겼다. 그리고 명절에 널뛰고 씨름하는 즐거움, 노름판의 긴박함, 밤중 밀회를 즐기는 남녀의 애뜻함, 기녀들과 유흥을 즐기는 양반들의 흥취 등 그림의 각 장면은 신분, 경제, 문화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2 풍속화는 어떤 그림인가

풍속화(風俗畵)의 개념을 ‘풍속을 그린 그림’이라고 정의한다면, 풍속화는 매우 오래전부터 그려졌다고 할 수 있다. 선사시대의 「농경문 청동기」, 「반구대 암각화」, 삼국시대 「수렵도」, 「무용도」 등의 고분 벽화도 그 당시 농경, 사

냥, 생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풍속화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의례적인 차원에서 그려진 것이다. 풍속 그 자체에 대한 순수한 관심에서 비롯한 그림으로 보기는 어렵다.

조선시대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내의 그림도 백성들이 유교 윤리를 체득하는 이야기들을 소재로 했다. 이는 백성들에게 충절효(忠節孝) 관념을 교화하려는 지배층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물이다. 이 역시 당시의 실태를 온전히 그렸다고보다 사대부의 이상적 윤리사회를 화폭에 담은 것이다. 한편, 16세기의 「호조낭관계회도(戶曹郎官契會圖)」, 「독서당계회도(讀書堂契會圖)」 등의 각종 계회도는 관리들의 모임이나 사가독서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주로 계회를 기념하고 기록하기 위해 그려졌는데, 문자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확인되기 어려운 계회 광경을 시각적으로 보완해주는 자료가 된다. 다만 계회의 전체 경관을 주목하기 때문에 각각의 인물 묘사가 구체적이지는 않다.

이상의 그림들은 의례, 교화, 기록의 특별한 목적에서 그려졌다. 물론 당대의 사회상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풍속화 범주에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보다 좁은 의미로 개념을 정리할 때는 주로 조선 후기의 풍속화를 거론한다. 조선 후기 풍속화는 그 시대의 생활 모습을 화폭에 담았을 뿐 아니라 제작 목적 자체도 보통 사람들의 일상 자체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하여 자율적으로 그려진 그림이 많았다. 그리하여 기존에 화가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일상의 소소한 장면이 그려지기 시작하였다.

한편, 풍속화는 화폭의 주인공이 사대부인지 일반 서민인지를 따져서 사인풍속화(士人風俗畵)와 서민풍속화(庶民風俗畵)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 중 서민풍속화가 조선 후기에 증가하면서 농민, 장인, 여성, 천인의 삶이 생생하게 표현될 수 있었다.

3 조선 후기 풍속화의 유행을 이끈 예술가들

조선시대 풍속화는 18세기 이후 윤두서, 조영석, 강희언 등으로부터 그려지기 시작하였다. 사대부인 윤두서는 서민이 짚신을 삼고 나물을 캐며 목기를 깎는 모습 등을 포착하였다. 다만 기존의 전통적인 화풍에서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하여 기존 중국 절파(浙派, 중국 명대 회화의 한 파) 화풍의 영향을 받은 산수인물화의 느낌이 강하다. 조영석은 『사제첩(麴臈帖)』에 풍속화 15점이 있는데, 선비들이 교유하는 모습에서부터 여인이 바느질하고 농민이 새참을 먹는 모습 등을 섬세하게 그렸다. 이후 점차 직업적 화원들이 늘어나면서 서민의 정취가 담긴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중인 화원 강희언의 경우 윤두서와 조영석의 풍속화 전통을 계승하고 이후 김홍도의 풍속화 형성에 영향을 끼친 교량적 역할을 수행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풍속화로 「석공도(石工圖)」가 있다.

풍속화는 화원 김홍도, 신윤복, 김득신 등에 의해 절정을 이루었다. 우선 김홍도는 그의 특유의 간결한 필체로 여러 계층의 삶을 그렸다. 그의 풍속화는 꽤 많은데,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단원풍속도첩(檀園風俗圖帖)』 속 25점의 그림이다. 「기와이기」, 「주막」, 「빨래터」, 「자리 짜기」, 「벼타작」, 「점심」, 「대장간」, 「논갈이」, 「서당」, 「무동」, 「점괘」, 「고누놀이」, 「씨름」, 「서화 감상」, 「길쌈」, 「담배 썰기」, 「편자 박기」, 「활쏘기」, 「우물가」, 「고기잡이」, 「장터길」, 「나루터」, 「신행」, 「노종상봉」, 「행상」 등은 A4 정도의 작은 그림(세로 27cm, 가로 22cm)이지만, 각각의 그림은 장인이 기와를 올리고, 주막에서 한 그릇 음식을 먹으며, 여인들은 개울에서 빨래하는 등의 일상을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다만 그림의 구도는 등장인물의 행위와 감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주변 배경은 생략하거나 간략하게 처리되었다. 채색도 푸른색, 갈색, 검은색 등 최소한의 색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김홍도의 풍속화에 대해 강세황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관련사료

세속의 모습을 옮겨 그리기를 매우 잘했다. 사람들이 살면서 날마다 쓰는 갖가지 말과 행동, 그리고 길거리, 나루터, 가게, 저자, 시험 보는 곳, 연희가 베풀어지는 곳 등을 한번 그리기만 하면, 사람들은 모두 손뼉을 치며 신기하다고 외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세간에서 말하는 김홍도의 속화(俗畵)가 바로 이것이다. 참으로 신령스러운 마음과 슬기로운 지식으로 홀로 천고의 묘함을 깨닫지 않았다면, 어찌 이처럼 할 수 있겠는가.

강세황의 극찬한 대로 김홍도의 풍속화에는 사람들의 다양한 일상이 담겨 있다. 「서당」에는 한 아이가 스승께 훈이 났는지 등을 돌려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있지만, 주변의 아이들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음 참느라 애를 쓴다. 「씨름」은 씨름을 하고 있는 두 장정 주변으로 갓을 쓰고 가족신을 신은 양반, 상투만 틀고 짚신을 신은 상민이 섞여 앉아 구경한다. 씨름판이 벌어진 데다 몇 사람이 부채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니, 단옷날의 광경으로 추정된다. 「서화 감상」은 유건(儒巾)을 쓴 유생들이 긴 종이를 잡고 둘러서서 감상하고 있지만, 종이에 그려진 것이 무엇인지 표현되어 있지는 않다.

이처럼 김홍도가 다양한 계층의 삶을 망라하였다면, 신윤복의 풍속화는 여성들을 많이 그렸다.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이전 화원들은 여성을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윤복은 남녀 간의 애정, 기방의 유흥, 양반과 기녀의 풍류까지 소재로 삼았다. 너무 비속한 것을 그려 도화서에서 쫓겨났다는 구전(口傳)이 있을 정도로, 당시 신윤복의 그림은 매우 파격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여성의 일상을 감각적이고 세련된 색채로 그려낸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신윤복필풍속도화첩(申潤福筆風俗圖書帖)』은 가로 28cm, 세로 35cm의 화첩으로, 「청금상련(聽琴賞蓮)」, 「기방무사(妓房無事)」, 「청루소일(靑樓消日)」, 「월하정인(月下情人)」, 「월야밀회(月夜密會)」, 「춘색만원(春色滿園)」, 「소년전홍(少年剪紅)」, 「주유청강(舟遊淸江)」, 「연소답청(年小踏靑)」, 「상춘야흥(賞春野興)」, 「노상탁발(路上托鉢)」, 「납량만흥(納涼漫興)」, 「임하투호(林下投壺)」, 「무녀신무(巫女神舞)」, 「주막(酒幕)」, 「쌍검대무(雙劍對舞)」, 「휴기답풍(携妓踏風)」, 「쌍륙삼매(雙六三昧)」, 「문종심사(聞鐘尋寺)」, 「노중상봉(路中相逢)」, 「계변가화(溪邊佳話)」, 「정변야화(井邊夜話)」, 「삼추가연(三秋佳緣)」, 「표모봉심(漂母逢尋)」, 「야금모행(夜禁冒行)」, 「유곽쟁웅(遊廓爭雄)」, 「이승영기(尼僧迎妓)」, 「단오풍정(端午風情)」, 「홍루대주(紅樓待酒)」, 「이부탐춘(嫖婦耽春)」 등의 그림 30점이 묶여 있다. 이 화첩은 일본으로 유출된 것을 간송 전형필(全鑒弼)이 구입해 왔고, 오세창(吳世昌)이 표제와 발문을 썼다.

신윤복이 주목한 여성들의 삶도 다양하다. 「단오풍정」에서는 여성들은 화창한 단옷날에 산 속 개울에 모여 머리를 감고 있다. 먹 감는 모습을 몰래 엿보는 동승과 무엇인가를 날라다 주는 여종의 모습이 그녀들의 즐거움과 대비된다. 「월하정인」은 초승달 아래 연인의 애뜻한 모습을 그렸다. 쓰개치마를 두른 여성은 시선을 살짝 돌렸지만, 수염도 나지 않은 젊은 양반은 정표라도 주려는 듯 원가를 꺼내며 그윽한 눈빛을 보내고 있다. 「이부탐춘」은 소복을 입은 여인이 짹짹하는 강아지들을 웃으며 보고 있고, 「유곽쟁웅」은 기방에서 난 싸움 광경을 묘사하고 있다. 신윤복은 이러한 그림들을 통해 여성 역시 사랑에 대한 욕망과 본능을 가진 주체임을 드러낸 것이 아닐까 추정되

지만, 그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다만 그림에 짧은 글귀를 남긴 경우가 가끔 있다. 「월하정인」에는 ‘달 빛 침침한 3경(밤 11시~새벽 1시 무렵), 두 사람의 마음은 둘만 알겠지’라고 기록되어 있다.

김득신은 김홍도와 비슷한 그림들을 많이 그렸다. 「대장간」에는 빨갭게 달궂어진 쇠덩이를 한 사람이 집게로 잡고, 또 다른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며 망치로 두드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자리짜기」에는 자리를 짜는 남편, 물레를 돌리는 부인, 글을 읽는 아이가 그려져 있는데, 김홍도의 그림에 없는 문밖의 고양이가 활력을 더해준다. 김득신의 그림 특징은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포착이 남달랐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야묘도추(野猫盜雛)」의 경우는 화창한 봄날에 고양이가 병아리 한 마리를 훔쳐 달아나버리자 어미 닭과 주인 부부가 놀라 쫓아가는 모습을 해학적이고 익살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19세기의 풍속화 화가로는 김양기(金良基), 권용정(權用正), 유숙(柳淑), 이한철(李漢喆) 등이 있는데, 당시 풍속화에 대한 평가는 상반되는 편이다. 풍속화가 쇠퇴했다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풍속화의 저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19세기 후반 김준근(金俊根)의 1,500여 점에 달하는 풍속화들을 보면, 그림을 향유하는 계층이 확대된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더욱이 개항이 이루어지면서 외국인들의 수요도 늘어났다. 김준근은 원산 개항장을 중심으로 외국 선교사, 외교관, 상인들을 대상으로 그림을 그려주었다. 일례로 「기산풍속도첩(箕山風俗圖帖)」은 현재 독일 로텐바움 세계문화예술박물관(MARKK, Museum am Rothenbaum Kulturen und Künste der Welt, 옛 함부르크민족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민속놀이, 혼인, 여성, 농사, 수공업, 과거 급제 행차, 형정(刑政), 시장, 기생 등 다양한 사람들의 생업과 일상생활을 담은 총 79점의 그림이 화첩으로 묶였다. 김준근의 풍속화 역시 개항기의 생활 모습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4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은 후의 결과물

이상과 같이 조선 후기에 풍속화가 늘어났던 까닭은 일상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다. 1592년부터 1636년까지 약 30여 년 동안 임진왜란, 정유재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의 전란이 연이어 발생했다. 전쟁은 사람들을 병들게 했고, 굶주려 죽게 했으며, 전염병으로 인한 고달픈 삶을 살게 했다. [관련사료](#) 그리고 포로 생활과 피난살이와 같은 고통이 심각했다. 수많은 가옥이 소실되었고, 논밭은 황폐해졌다. 사람들은 그동안 당연시했던 평범한 일상을 순식간에 잃어버렸다.

18세기에 어느 정도 전란이 극복되면서 일상과 현실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경향이 문화 전반에 나타났다. 더욱이 상품화폐 경제와 도시 문화가 발달하면서 책과 그림에 서민의 삶이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서적 출판이나 회화 제작에 관심을 두는 계층의 폭도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의 대표적인 예가 풍속화이고, 그 결과 조선 후기 풍속화는 기존의 중국 화풍에서 벗어나 우리의 독창적 색채를 드러낼 수 있었다. 또한 당시의 생활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기 때문에 텍스트 사료로만 설명되기 어려운 분야에서 유용한 시각적 사료가 되기도 한다.